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가정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 교육주간 새벽기도회는 아침 5시 30분에 모이고 찬양은 요일마다 방별로 맡아서 합니다.
월(그루터기사랑방), 화(비움사랑방), 수(새싹·미리내사랑방), 목(따뜻한사랑방), 금(디아코니아사랑방), 토(연령별사랑방)
- 공동체운영위원회 47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서울경기강원 네트워크 정기모임이 22일(화) 12시 춘천에서 있습니다.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교장단 포럼이 25일(금) 10시 샘물배움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평양노회 201회 가을노회가 22일(화) 양정교회에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 김진명 목사(장신대 구약학 교수)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임상희 권사 가정 (감사)

최창수 · 정혜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나 청년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증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2 호

2024년 10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코이노니아를

멋쟁이학교에서는 해마다 소식지가 만들어집니다. 멋쟁이들이 손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며 만드는 얇은 책입니다. 옛날에는 ‘누룽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코이노니아(koinōnía)]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물어보았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다들 잘 알다시피, 교제, 나눔, 연합, 공유, 합동, 성찬, 참여, 교통 등 여러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 하나의 단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더니 순진한 얼굴에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코이노니아라고 제목을 정했나요?” “코이노니아는 ‘소식지’잖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이지.” 좋은 대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은 그럭저럭 납득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당사자는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화의 내용대로 코이노니아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선생님과 학생을,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방공동체와 다른 기독교 학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는 단지 사랑방공동체학교의 소식지를 부르는 명칭뿐만은 아닙니다. 사랑방공동체에는 이미 다양한 모습과 이름을 가진 신앙의 교제들이 존재합니다. 주일예배, 주일 점심 식사와 준비, 설거지, 주말 지킴이, 연령별/지역별 방모임, 성경 공부, 특강, 공동체 생활, 봉사활동, 청소, 찬양, 성찬식, 운동회, 농사, 손님 대접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는 교제들도 있습니다. 식사 후 데크에서 한적히 앉아 나누는 담소, 날씨가 추워지면 누군가가 피워놓은 모닥불을 둘러싸서 쪼는 온기, 주일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누는 인사, 아이들을 향한 포옹, 남몰래 혼자 드리는 기도, 함께 공을 치거나 차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느 단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앙공동체 안에서 겪는 모든 교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함께 공유되는 믿음 안에서의 교류, 교회가 땅에 있는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는, 내용이나 형식

과는 상관없이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사이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특별한 제삼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게 사셨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지워졌기에,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실현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배 의자를 놓는 것, 식사 전에 방석을 까는 것,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가져다주는 것,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다른 지체들을 위해 따뜻한 물이나 차를 준비하는 것,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활동을 내 소유로 돕는 것, 접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시대로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동체적인 삶, 즉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도록 하시고, 크신 뜻으로 우리를 인연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허투루 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면, 이 인연 또한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처럼 교제하기 위해서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잘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으로 연합하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방공동체는 코이노니아에 근거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론 비틀거리고 무언가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한주간의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
<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405 370 / 305

기도 : 나송주 집사

성경 : 스바냐 1장

제목 : 질투하시는 하나님

1.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다 (What)

- 1) 내가 모든 것을 쓸어 없애겠다.<1-6>
- 2)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다.<7-16>
- 3) 주님의 심판을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다.<17-18>

2.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Why)

- 1)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17> 우상숭배<4-5>
- 2) 주님의 불같은 질투 때문이다.<18>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 3)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으나,

3.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How)

- 1)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질투하실 만큼 절대적인 사랑)
- 2)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우상은 하나님 위에 두는 것들)
- 3)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페렴

안녕하세요, 푸른꿈사랑방 화진심 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크게 아픈 적이 진짜 없는데, 이번 페렴이 정말 인상 깊었던 병이 된 것 같아서 페렴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저저번주 주말부터 목이 쉬었는데, 감기인줄 알고 학교를 가니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페렴이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당하고 킹받는 이 현실을 앞두고 2주간 집에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봐도 맘이 편한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정말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건강 앞에서는 뭐든지 뒤로 던지고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아파서 폰이랑 책을 오래보면 어지러워져서 하루 종일 자거나, 이럴 김에 반주연습이나 할까 해서 ccm 피아노를 많이 듣고 따라 치기 시작했는데, 늘 새벽에 호흡기관이 약해지니까 기침 때문에 숨을 못 쉴 때, ccm을 틀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평안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ccm의 마법을 페렴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뭐든 다해주는 엄마를 보며 미안하고 고맙고, 감동하면서도 놀랐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엄마라는 신분이 더 대단하고 신기해 보였습니다.

바자회 때 엄마가 대신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면서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갔다 와서 “멋쟁이들이 널 많이 물어봤다”,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전해 달래” 라고 많이 얘기해줬고, 전화로, 문자로 관심 해주신 분들이 예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관심해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싶고, 공동체라는 가족이 있는 게 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병원 가보니 거의 다 나았다고 합니다. 병이란 것도 많은 것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법이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푸른꿈사랑방 화진심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예레미야서 29 : 11-12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11 : 25 인도자

36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에베소서 6 : 10-20 설교자
459 그루터기사랑방

설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64 다함께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인도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박태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땅위의 평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변질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10-20>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적 교훈입니다<10> 교훈의 내용은,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10-17>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18>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19-20>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오늘은 <8>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은 토요일 새벽에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왜, 교훈의 마지막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였는가?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이고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로마제국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내부로는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교회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므로, 휴전 중에 있는 한반도가 이 전쟁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전쟁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박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즐거운 음률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음률놀이는 풍선마라카스를 가지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놀았습니다. 음악에 따라 크고, 작게 표현해보고, 소리도 크고, 작게 냅니다. 끝나고 얼굴은 하나 같이 빨갭게 익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풍선마라카스는 언제 해도 재밌습니다. 남은 풍선마라카스는 선물로 나눠줘서 집에 가는 길에도 몸을 흔들며 갑니다.

졸업을 앞둔 2018년생 친구들만의 졸업여행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주 앞당겨서 다녀왔는데 노란 굴이 별로 없고, 너무 더워서 긴 팔이 필요하지 않아 놀랐습니다. 처음 차에 탄 순간부터 두 친구들은 쉬지 않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도 거의 자지 않고 둘이서 어찌나 잘 노는지 제주도가 아니라 옆 동네로 갔어도 재밌게 놀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 어떤 게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니 둘 다 제트보트와 말 타기가 재밌었다고 합니다. 제트보트는 파도가 세지만 거침없이 앞을 질주해 가며 엉덩이를 때리는데 신세계를 맛본 것 같았습니다. 말 타기도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니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그 외에 스누피가든, 김녕미로공원, 수영장, 섭지코지, 천지연폭포, 민속박물관 등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이번 주 어린이는 도보여행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2박3일을 안동에서 걷고 늦은 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휴업을 하니 일주일이 훑 지나갔네요.

첫날 학부모님들의 눈물어린 배웅을 받고 출발을 했고 선비의 고장 안동 구석구석을 돌며 생긴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잔뜩 짊어지고 부모님들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함께 걸어 주신 부모님들의 맹활약과

뒤에서 밥해주시고 도와주신 뛰어난 섬김을 듣기만 해도 든든하고 배가 부릅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한 어린이와 선생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은 어린이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재학생 가정의 소개로 참여하신 가정도 있었고 검색을 통해 오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듣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참 진지했고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학생들의 생활상을 들을 땐 놀라고 감동하는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무언가 꼭 찬 느낌을 받은 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달이 꼭 차는 보름 기간, 멋쟁이학교에서는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을 5분할하고 각 모듬이 한 지역씩 맡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 각 장소에서 외국인들을 직접 인터뷰 하는 과제도 수행했습니다. 낯선 외국인과 인터뷰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많은 멋쟁이들이 성공하는 뿌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행 와중에도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다른 모듬이나 공동체학교들의 여행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동문이나 학부모님의 도움과 선물이 전해져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6학년은 학교에 남아서 그들만의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멋쟁이 중 가장 열심히, 또 진지하게 앞날을 꾸려가고자 노력하는 6학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전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며, 또한 공동체를 방문하신 손님들을 섬기는 뜻깊은 경험을 보냈답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교육주간으로 멋쟁이들은 새벽기도에 참여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마라톤에 참여할 예정이라, 모두에게 있어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성 싶습니다. 피로를 딛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도보여행의 엄마 선생님

어린이학교의 여행 중에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이 있는데, 이번 도보여행이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여행이다. 나에게도 기회가 되어 엄마 선생님이로 도보여행에 같이 가게 되었다. 사전에 어머니들과 만나 메뉴를 짜고, 여행에 임박해 장을 보고, 짐을 챙겼다. 멀게 느껴졌던 여행이 점점 실감이 난다. 여행 날 아침 아이들과 내 짐을 챙겨 모임 장소로 향했다. 다른 가정에서 마련해주신 밑반찬들을 모으고, 식재료와 조리도구들을 챙겨 이번 도보여행 장소인 안동으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저녁밥을 준비하러 숙소로 향했다. 첫날 저녁은 숙소가 캠핑장이라 숯불구이를, 둘째 날 저녁은 안동에 왔으니 안동찜닭을, 셋째 날은 아침식사 준비와 점심 도시락 준비까지 해야 했다.

많은 인원이 먹는 음식을 낮은 장소에서 준비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함께 간 4명의 엄마선생님들이 각자 맡겨진 일을 하니 빈 곳 없이 잘 진행되어 갔다. 마지막 날까지 총 6번의 식사를 다 마치고 흥가분한 기분을 느끼며 아이들이 도착하는 장소로 향했다. 오늘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신나게 교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들어온다.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무척 예쁘고 사랑스럽다. 50여km의 도보여행을 마쳤다는 뿌듯함과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분위기였다.

여행에 함께 해보니,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생활한다. 스스로를 챙기고, 틈만 나면 놀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간다. 주변을 보며 서로를 챙기고, 돕는 것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난 선생님들이 챙겨주신 간식을 굴 몇 개 까먹고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굴껍질만 가져오고 다 먹었다. 정신없이 지낸 나랑은 차원이 다른 익숙한 여행이었나 보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익숙한 모습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태일 목사

찬 송 : 570장, 205장

성 경 : 누가복음 2:36-38

말 씀 : 84세의 과부, 성전 지킴이

1. 안나, 과부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섬김.
2. 역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구원사에 참여.
3.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지킴이가 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한반도 평화, 북한 주민과 성도들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 모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공동체학교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각 학교의 여행으로 많은 공동식구들이 여행지로 떠나고 남은 식구들은 일상을 이어갑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 모임이 있어 공동식구들은 회의 준비와 식사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정성어린 식사를 대접하셔서 오신 손님들이 감격해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간만에 고요한 공동체였지만 정화도 수리 및 청소, 고구마 캐기를 비롯한 여러 작업들로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교육 주간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영미 전도사>